

Original Article

한의학 의안(醫案) 학습에서 논증적 글쓰기 적용 가능성 탐구

권강¹

¹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argumentative writing in learning Korean medical record

Kang Kwon¹

¹Department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Received: August 8, 2023
Revised: September 20, 2023
Accepted: September 22, 2023

Corresponding Author:
Kang K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20, Geumo-ro, Mulgeum-eup,
Yongsan-si, Gyeongsangnam-
do 50612 Korea
E-mail: hanny98@pusan.ac.kr

Background and Methods: Argumentative writing is a writing method that logically and rationally organizes one's thoughts on a problem based on a novel and individual analysis of the situation. There are two types of logic; formal logic and informal logic.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models of informal logic is the Toulmin argumentation model, which was reorganized into a new argumentation model by Williams and Colomb.

Results and Discussion: The purpose of studying medical record is to refer to and verify the insights of predecessors in clinical practice and to utilize them to inherit and develop modern Korean medicine. It will be much easier to understand and use if argumentative writing is incorporated in researching medical record educ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Korean medicine.

Keywords: Argumentative writing, Argument model, Medical record, Toulmin, Williams and Colomb

서론

글쓰기는 거의 모든 학문 활동에 통용되는 활동이며 특히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합하는 작업은 글쓰기를 통해 가능하다.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 및 보편성과 개별성 등을 고찰하며 이를 하나의 글로 정리하는 글쓰기 과정은 학문간의 학제성과 경험 중심의 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 고등학교까지 내주는 글쓰기 과제는 대부분 '요약'이다². 하지만 대학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것을 반복하기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가르쳐준 것 말고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한다. 내 주장을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남들도 거기에 동조해야 하는 이유를 대라고 요구한다². 논증적 글쓰기는 어떤 문제에 사태에 대한 참신하고 개성적인 분

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글쓰기의 한 방법이다³. 우리가 '논증한다'고 말할 때는 어떤 판단이 참(眞)이란 것에 이유를 부여하고, 그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논증해야 할 판단(주장이 담긴 주제)을 논제(論題) 혹은 명제(命題)라 하고, 이 논제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논거(論據)라고 하며, 논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추리(추론)라고 한다⁴.

한의학 교육에 있어서 의안(醫案)은 역대 의가(醫家)들의 실제 치료과정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재료이다. 의안(醫案)은 의가(醫家)들이 질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글로 적은 것이다. 이것은 임상에서의 변증시치(辨證施治)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서 이론에서부터 임상실제에 이르기까지의 이, 법, 방, 약(理, 法, 方, 藥)을 구체적으로 다룬 의가(醫家)들의



경험집이라고 할 수 있다⁵.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대다수인 의서(醫書)들의 문장들과 달리, 의안은 실존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므로 실증적인 자료로 인식되어 왔다⁶. 강 등⁷은 의안의 유형을 실록식, 추억식, 병력식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의안을 읽는 방법을 순독법, 역독법, 이독법, 비교법, 통계법, 추독법, 평독법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서양의학의 진료기록부가 환자의 건강상황과 질병의 발생·진행 및 진료의 전과정을 기록하고 그 중에 이용가치가 있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진료 자료인데 반하여, 의안(醫案)은 환자의 증상과 몸의 상태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의사의 주관적인 생각에 진단의 가치가 비교적 큰 증상과 경과를 기록하여 변증론치(辨證論治)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한 자료이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는 병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의안(醫案)은 의가(醫家)의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명의(名醫)의 의안(醫案)을 읽는 것은 임상수준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된다⁷. 여기에 의안(醫案)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른다면, 실제 임상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의안(醫案) 교육에 대하여 고민해 왔으며, 최근 대학교 글쓰기 교육에서 중시되고 있는 논증적 글쓰기를 접목하여 학생들이 의안(醫案)을 학습하고 이해하며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논리를 세운다는 것’은 말하고 생각하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말, 생각, 글의 앞뒤가 맞는지 그 이치를 따져보는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논리적인 원칙이 요구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주장’이 제시되는 갈등상황이다. 사람들은 명백한 것과 필연적인 것에는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 갈등상황에서야 비로소 논리적인 이치를 따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논리적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장을 지지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을 ‘논증’이라고 한다⁴.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적 글쓰기는 대학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⁸. 논증적 글쓰기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적절한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이것이 타당성이 있음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기존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⁹. 대학 과제가 논증적 글쓰기에 치중되어 있는 이유는,

논증적 글쓰기의 특성과 학문적 연구의 밀접한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적 연구는 곧 사고 과정이며, 사고는 그 재료를 가지각색의 성분으로 분해하고 잡다한 사실이나 현상을 추상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글을 쓰거나 읽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쓰기는 생활 경험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고나 지식을 구조화한다¹⁰.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의사소통적 담화로 보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언어와 사고의 교호적 상관성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현실과 무관한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⁹.

페렐만(C. Perelman)은 형식논리학과 비형식논리학을 구분하면서, 형식 논리학인 수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적 논증으로서 변증론이 이에 해당하고, 비형식 논리학인 인문 분야는 수사학적 논증으로서 대화술이나 설득술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⁴. 논증의 형식적 관계는 사고나 판단의 내용을 무시하고 추리의 타당한 형식적 성립 조건만을 다룬다. 즉 논리적 관계를 수학처럼 입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역 논증은 “만일 A 가 B 이고, B 가 C 라면, A 는 C 이다”라는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것은 형식상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⁴.

비형식 논리학은 일상적인 논증행위의 취지를 살리면서 논증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둔다⁴. 즉 비형식 논리는 일상적인 대화, 신문기사, 정치적 토론, 광고 등에서 만나게 되는 논증들을 폭넓게 포함한다⁴. 비형식적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가 툴민의 논증 모형이다. 형식 논증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논증이었다. 툴민의 전략은 ‘연역=타당=보편적=형식적=분석적’의 연결을 끊는 것이었다¹¹. 툴민이 보기에 전통적인 형식 논리학은 단순하고 너무 경직된 모델이어서 현실 공간의 역동적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툴민이 보기에 논증의 합리성은 형식 논리학에서 제시하는 논증의 타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만들어가는 합리적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⁸. 툴민은 기존의 연역 논증의 형식적 특성을 비판하면서 현실에서의 규범이나 실증적 자료들을 논증에 포함하고 나아가 논증의 개연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조건을 보강했다¹². 툴민의 논증모형은 주장(claim), 근거(ground), 보증(warrant), 한정사(qualifier), 반박(rebuttal), 보강(backing)의 6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근거, 보증, 주장은 기본요소이고, 보강, 반박, 한정사는 보조적 요소이다⁴. 여기에서 보증(=전제)은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추론상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으로 설득적인 논증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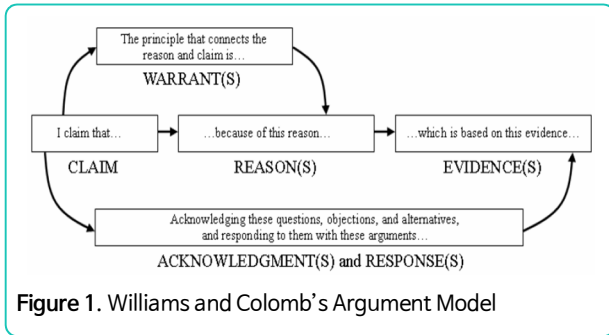


Figure 1. Williams and Colomb's Argument Model

윌리엄스(J.M. Williams)와 콜롬(G.G. Colomb)은 비형식 논리학자 톨민의 논증 모형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델로 정리·제시했다(Figure 1)^{8,13-15}.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주장(claim)은 이유로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이고, 이유(reason)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주장은 주요주장과 하위주장으로 나뉘는데, 주요주장은 전체 논증의 주요 핵심(논제, thesis)이며, 하위주장은 주요주장이 아닌 모든 주장을 말한다. 주장과 이유만 있으면 가장 단순한 논증이 완성되지만 논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두 개의 닻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사실이라는 근거의 닻이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제라는 닻도 내려야 한다. 이 네 가지 요소(주장, 이유, 근거, 전제)가 윌리엄스·콜롬이 정리한 논증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8,13}.

의안(醫案)은 맥안·방안·진책(脈案·方案·診籍)이라고도 하며, 의안(醫案)은 환자의 증상(症狀)·병인(病因)·맥상(脈象)·설상(舌象)·병기(病機)·진단(診斷)·전변(轉變)·치료원칙·주의사항 등을 분석하여, 약물의 명칭, 분량, 포제방법, 복용법 등의 치료방법을 기록한 자료이다⁷. 의안(醫案)의 연혁을 살펴보면, 대략 진한시대(秦漢時代)부터 시작되어 송금원시대(宋金元時代)에 발전하여 명청시대(明清時代)에 성숙하였다⁵. 의안(醫案)은 청대(淸代)에 크게 발전을 하였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의안가(醫案家)로는 섭천사(葉天士), 오국통(吳鞠通)을 들 수 있다. 섭천사(葉天士) 의안(醫案)을 경화(經華), 수운(岫雲) 등이 수집·정리하여 『임증지남의안(臨證指南醫案)』을 편성 간행하였는데, 섭씨(葉氏)의 의안(醫案)은 이치를 분석함에 조예가 깊고 방약(方藥)에 재주가 뛰어나며 안어(按語)에 통달한 특징이 있다. 오국통(吳鞠通)은 변증방약(證治方藥)을 섭씨의안(葉氏醫案)을 따라서 연역하고 변화시키고 다음어서 『온병조변(溫病條辨)』을 저술하였다⁷. 醫案을 연구하는 목적은 선인들의 식견을 한의학적 임상에 참고하고 검증하여 후세의 의가(醫者)들이 활용하고 전통의학의 맥을 승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⁵.

만일 해당 의가(醫家)의 의안(醫案)을 읽고 분석한다면 그 의가(醫家)의 학술사상과 치료경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 같은 시대의 의안(醫案)을 읽고 분석한다면 해당 시대의 질병발생의 경향과 치료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⁵.

다음은 이중재(李中粹)의 의안(醫案)이며 제목은 ‘대실여리상(大實如羸狀)’이다¹⁶.

사우(社友)인 한무원(韓茂遠)이 상한(傷寒)으로 9 일 동안 말을 못 하고 보지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이고 사지구냉(四肢俱冷)하니 사람들이 모두 음증(陰證)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진찰해 보니 육맥(六脈)이 모두 잡히지 않고 복진을 하려 하니 두 손으로 막으면서 미간을 찌푸렸다. 부양맥(趺陽脈)을 눌러 보니 대이유력(大而有)하여 복부에 조시(燥屎)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놀라 쓰지 못했다. 내가 우리 무리들 가운데 이 증상을 잘 변별할 자는 오직 시립택(施笠澤)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가서 진찰하고는 나와 함께 말하니, 마치 부절을 맞춘 것 같이 똑같았다. 하(下)하게 하니 조시(燥屎) 6, 7 매(枚)가 나왔고 그 후 말을 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손만 잡아보고 발을 만져보지 않았다면 어찌 이 위태로운 증(證)을 구할 수 있었겠는가? (醫宗必讀 卷五)

톨민의 비형식적 논증 방식에 따른다면, 이 의안(醫案)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으며 서로 다른 변증(辨證)으로 표현되었는데, 하나는 음증(陰證)이고 하나는 양증(陽證; 陽明腑實證)이다. 그 두 가지 주장에 각각 근거가 있는데 전자는 사지구냉(四肢俱冷)이라는 증상이고 후자는 부양맥(趺陽脈)이라는 맥상이다. 두 주장의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저자(李中粹)는 양증(陽證; 陽明腑實證)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시립택(施笠澤)이라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열린 자세도 보여주었다. 만약 시립택(施笠澤)이라는 사람이 저자의 의견에 반박을 했다면 보강의 과정을 거쳐야 했겠지만, 두 사람의 의견이 같았으므로 그 과정은 없었다. 결국 치료는 양증(陽證; 陽明腑實證)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시(燥屎) 6, 7 매(枚)가 배출된 후 호전이 되었다.

여기에서 주장과 근거라는 요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전제’이다. 이는 윌리엄스(J.M. Williams)와 콜롬(G.G. Colomb)의 논증 모형에서도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는, 질병에 있어서 인체가 나타내는 진상(眞象)이 있고 가상(假象)이 있으며 치료자가 찾아야 할 것은

진상(眞象)이라는 것이다. 각가학설(各家學說)¹⁶의 해설에 따르면 이 환자의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四肢)가 모두 냉(冷)한 것’은 외표(外表)에 나타난 가상(假象)이며, 오직 부양위맥(扶陽胃脈)이 대(大)하면서 유력(有力)하고 맥(腹)이 만(滿)하여 거안(拒按)하는 것을 통해 열실내울(熱實內鬱)의 증(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 의안(醫案), 더 나아가서 한의학의 질병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보증(warrant)이자 전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의안(醫案)은 돌민, 윌리엄스와 콜럼의 논증모형으로 충분히 분석이 된다. 의안(醫案)은 구체적인 임상현장에 대한 기록이므로, 기초와 임상현장을 연계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는 자료이다⁶. 또한 해당 의안에 대한 인물과 학술사상, 환자의 생리, 병리, 처방, 가감법, 예후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없다면, 의안(醫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⁶. 변증론치(辨證論治), 즉 ‘증(證)을 변별하고 치(治)를 논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가설과 검증을 통한 추론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며 의안(醫案)을 논증적 글쓰기와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의 의안(醫案) 교육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논증적 교육 글쓰기 프로그램에 준하여 시행함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⁹에 따르면 논증적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은 전 과정을 수준에 따라 3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는 다시 3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제 1 단계에서는 읽어야 할 텍스트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시작한다. 제 2 단계는 점차 텍스트는 주되 자신이 직접 자료를 찾아 읽고 쓰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제 3 단계에서는 읽을 텍스트는 주지 않고 해결해야 할 주제나 명제 또는 상황을 제시하는 글쓰기로 나아간다.

만약 이를 의안(醫案) 교육에 적용한다면, 제 1 단계에서의 텍스트는 역대 의가(醫家)들의 의안(醫案)이 될 것이다. 의사학, 원진학 등 기초한의학 교육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접목한 의안 교육 제 1 단계를 활용한다면 문제중심으로 원문 해석을 훈련하면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저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학습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단계는 본초학, 경혈학, 진단학 등 여러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후 팀(team) 기반학습으로 팀(team) 내, 팀(team) 간의 토론을 유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제 3 단계는 지도하는 사람이 동영상으로 임상 상황을 제시하는 방법도 좋지만, 병원실습에서 학생들이 환자를 대면해서 병력취취를 하고, 논증적 글쓰기 방법으로 스스로 변증론치(辨證論治) 과정을 작성해 보는 훈련을 한다면 학생들이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대학교육의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가 지적 창조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면,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 사고를 기르려는 것은 대학교육의 목적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⁴. 의안(醫案)은 한의학의 변증론치(辨證論治) 이론이 실제 임상에 구현되는 과정을 의가(醫家)들이 기록한 글이며, 논증적 글쓰기와 접목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다. 즉, 의안(醫案)을 읽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임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직접 환자를 보고 논리적 글쓰기를 통하여 의안(醫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한의학 전공 학생들의 한의진료 역량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연구비 지원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out funding.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ORCID iD

권 강 <http://orcid.org/0000-0002-7250-2603>

CRedit Statement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Investigation, Project administration, Writing-original draft, Writing-review & editing, and Visualization: KK.

References

1. Shin SK. The need for writing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and its direction. *Research on writing*. 2006;2:61-84.
2. Joseph M Williams, Gregory G Colomb. The craft of argument. Seoul:Crescendo. 2021:26-7.
3. Choi SM. Statement education and evaluation by theatrical method. *J literary theory*. 2007;32:350.
4. Kim MS.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on the argumentative history writing courses for pre-teachers.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2012;121:43-97.

5. Kim NI. The need and meaning of studying medical records in the Korean medical history. *J Korean medical history*. 2005;18(2):189-95.
6. Ku MS, Cha WS, Kim NI. A study on the educational utilization of Eui'an(醫案) - The possibility of combination between PBL (Problem based learning) and Eui'an -. *J Korean medical history*. 2018;31(2):83-90.
<https://doi.org/10.15521/jkmh.2018.31.2.083>
7. Kang JS, Kim YC, Shin HK, Kim BS. Study on effect of learning treatment chart.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5;19(3):580-5.
8. Baek EC. The differentiation and meaning of argumentative writing in educatio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16;62:317-41.
<https://doi.org/10.23016/klj.2016.62.62.317>
9. Lee JO. A search for new direction of writing education at university. *Research on writing*. 2005;1(1):165-92.
10.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Seoul:Moonye publisher. 1995:156-9.
11. Bae SH. Argument and argumentation - in the light of critical thinking education. *J Philosophical Ideas*. 2011;42:151-83.
<https://doi.org/10.15750/chss.42.201111.006>
12. Hyun NS. The use of Toulmin argument in academic writing. *Ratio et Oratio*. 2010;3(2):63-98.
<https://doi.org/10.19042/kstc.2010.3.2.63>
13. Joseph M Williams, Gregory G Colomb. The craft of argument. Seoul:Hongmungwan. 2008:60-102, 513-21.
14. Yair Levy, Timothy Ellis. A systemic approach to conduct an effective literature review in support of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J an emerging transdiscipline*. 2006;9:181-212.
15. Williams JM, Colomb GG. The craft of argument (2nd ed). New York:Longman, 2003:42.
16. Jin DS, Jeung Y, Hwang JD. Each expert's theory. Goyang:Daeseong Medical publisher. 2001:356-8.